

1인 100그루 심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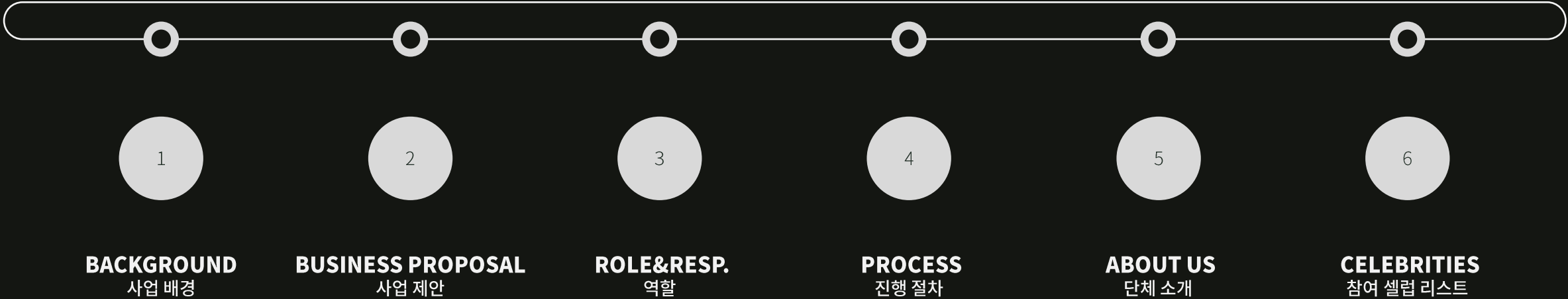
TREE HUNDRED

BUSINESS PROPOSAL
사업제안서

사단법인 리본디어스



CONTENTS



탄소가 늘수록 생물종이 줄어듭니다.

탄소가 증가할수록 지구의 기온은 상승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와 생태계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빙하가 녹고 기후가 변화하는 데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불가피하게 멸종하게 됩니다.



1)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패널

탄소중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나무심기 움직임

오래 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나무 심기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왔으나 2020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발표를 시작으로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In January 2020, President Trump announced his support for the **One Trillion Trees** Initiative at the World Economic Forum's (WEF) meeting in Davos.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회의에서 1조 그루 나무심기 발의에 대한 지지를 밝혀

AMERICAN ACTION
FORUM

20.10.23

China will aim to plant and conserve **70 billion trees** by 2030 as part of the global tree movement.

중국은 국제적 나무심기 운동에 따라 2030년까지 70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22.03.25

산림청, 30년간 **나무 30억 그루** 심어 탄소 3,400만톤 흡수

한국일보

21.01.20

France will plant **1 billion trees** – or 10% of the country's forest area – by 2030 to capture carbon and preserve biodiversity, President Emmanuel Macron told firefighters in a speech on Friday (28 October).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0월 28일에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산림 면적의 10%인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EURACTIV

22.10.29

탄소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탄소흡수량

2050 탄소중립 목표로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나 탄소배출량에 비해 탄소흡수량은 턱없이 모자라며 그마저도 **벌목과 노령화로 줄어들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¹⁾

1) 202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BACKGROUND

매년 우리는 8.8그루의 나무를 휴지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213롤의 화장지를 사용¹⁾합니다. 30년생 나무 한 그루로 24롤의 화장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매년 우리는 8.8그루의 나무를 번기나 휴지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1) 미래생활(주)소비자자료(2020) 제공

BACKGROUND

우리는 평생 종이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은 189.2Kg으로 전세계 1인당 연간 사용량인 56.2Kg 보다 3배 넘는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펄프 200kg를 만드는데 4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매년 2억 4천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고 있고 **평생 한 사람이 100-200그루의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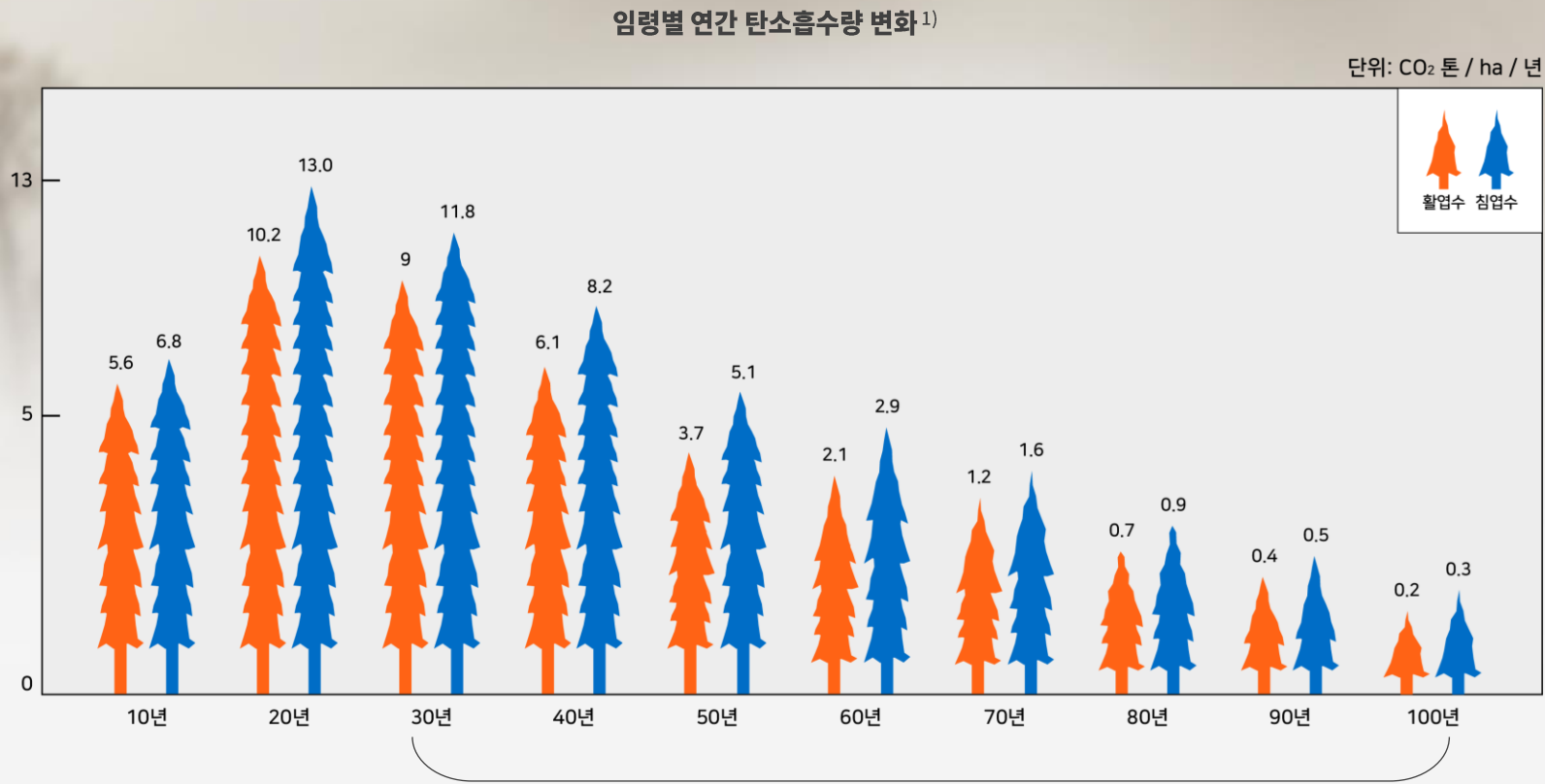
한국인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
189.2 Kg¹⁾



전 세계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
56.2 Kg

나무 심기를 하면서 왜 나무를 베나요?

나무 한 그루당 탄소흡수량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침엽수의 경우 수령 30년~50년 사이에 절정에 다
다르고 이후 감소하게 됩니다. 국내 숲의 대부분은 70-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현재 31-50년생 나무가
전국 산림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흡수를 위해 대규모 재조림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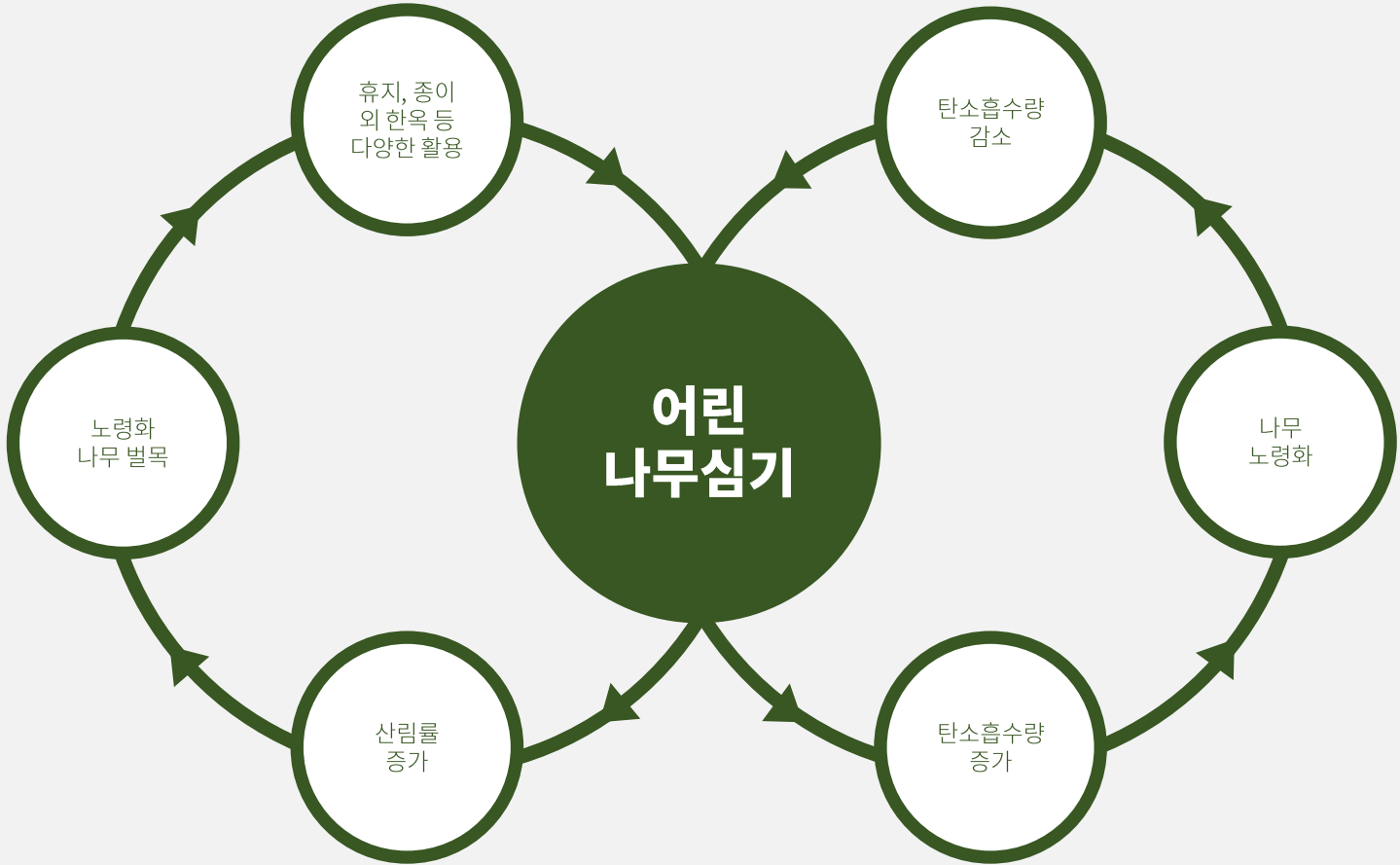


탄소흡수량이 감소하는 4영급(31-40년) 이상의 나무가 전국 70% 차지

1)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노령화된 나무 CUT, 어린 나무로 탄소흡수량 UP

노령화되어 탄소흡수량이 줄어든 나무는 벌목하여 휴지, 종이 또는 목조 건물, 플라스틱 대체재 등으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흡수량은 늘리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BUSINESS INFO.



BUSINESS PROPOSAL

나무심기 캠페인 사업을 제안합니다.

TREE HUNDRED

탄소를 흡수할 나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준 평생 100-200그루 나무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전 세대가 심은 나무를 사용했다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심을 차례입니다.



모두의 힘으로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

ROLE & RESPONSIBILITY

지방자치단체 신규 조림 가능한 장소 섭외 홍보 및 운영 예산 편성	사단법인 리본디어스 캠페인 종합 운영관리 개인/기업 대상 모금 활동	셀러브리티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소셜미디어 홍보 팬 및 팔로워 대상 참여 권유
지역산림조합 조림 예정지 정리 묘목 구입 및 식수 사후 관리	산림탄소등록부 사업 타당성 검토 산림탄소감축량 검증	언론 캠페인 홍보 사업 성과 보도

사업 운영 프로세스

나무심기는 개인 후원자, 유관기관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협력하여
실현하는 높은 사회적 가치의 공동 캠페인입니다.



ABOUT US

사단법인 리본디어스

사단법인 리본디어스는 지역과 기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다수의 개인과 기업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나무심기 등 친환경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ELEBRITIES

리본디어스의
CELEBRITIES

장동건



이진욱



백가



지안



마동석



헌빈



지수



신민아



※ 현재 참여 제안 중이며 확정된 리스트는 아닙니다.

E.O.D.

